



2면

정유서 JB연수원 기공식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순항'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음 10월 23일) 제26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주시 국가예산 8103억원 쉐크했다

수능 이후 안정적 학사운영 지원

전북교육청, 코로나 상황실 24시간 운영·생활지도 강화

올 보다 14.5% 늘어... 전북도·정치권 협치 성과 전주형 뉴딜·수소·드론·탄소 등 신산업 '탄력'

전주시가 전주형 뉴딜, 수소, 드론, 탄소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등 미래 먹거리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관련기사16면)

전주시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 7,073억 원보다 1,028억 원(14.5%) 늘어난 8,103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국가·유관기관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604억 원 늘어난 13,607억 원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관광거점도시 등 문화관광 34개 사업 629억 원 ▲전주형 뉴딜 등 산업경제 91개 사업 2,368억 원 ▲사회안전망 58개 사업 1,618억 원 ▲생태환경 36개 사업 774억 원 ▲시민 삶을 바꿀 시설·생활SOC 18개 사업 2,718억 원 등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는 ▲전주로파크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20건(208억)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드론혁신지원센터 등 산업경제분야 30건(703억) ▲전주동물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등 생태환경분야 9건(107억) ▲생활SOC분야 신규사업 14건(235억) 등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형 뉴딜, 수소, 드론, 탄소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12억)과 수소체력관 및 통합안전운영센터 건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수소 생태계 구축(115억) 등의 예산을 확보해 전주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드론스포츠 복합센터'와 드론산업 전문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 구축 예산 33억 원 (제)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데 따른 국비 310억 원도 따냈다. 전주시 제3 금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비(0.5억)로 드론, 탄소, 금융으로 연결되는 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위한 예산 69억 원과 범

원·검찰청을 무대로 한 '전주로파크'와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예산 17억 원을 쉐크했다.

또한 ▲무형문화 복합 편의시설 건립(30억)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2억) ▲국립전주박물관 정문주변 환경 개선(40억) ▲전주동물원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21억) ▲전주부성 긴급 발굴(4.3억) ▲경기전 어진박물관 증축(3억) ▲서학동에 슬러브문화센터 조성(4억) 예산을 확보했다.

도시혁신 및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중경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사업(20억) ▲전주 사회혁신센터 조성(10억)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2억)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친화 공간 조성(45억)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3억) 예산을 따냈다.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SOC 분야에서는 ▲호남고속도로(삼례IC~전주IC) 확장과 육교개교 병목지점 개선사업(89억)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7억) ▲이중호수도서관 신축(5억) ▲빈집투회형 뉴딜사업(17억) ▲이중호수 구 하수관로 정비(5억)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옛 법원·검찰청이 떠난 자리에 전주로파크와 한국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눈길을 끈다. 2019년 청사 이전 후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 문화 재생으로 한옥마을과 함께 지역 관광산업을 이끌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드론스포츠산업을 집적할 '드론스포츠 복합센터'와 드론산업 전문지원기관인 '드론혁신지원센터' 구축 예산을 확보한 것도 2025 세계드론축구월드컵 전주 개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국가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포함해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사업(6억), 완산도서관 문화재생 사업(10억), 문화공간혁신센터 1973조성 사업(4억) 예산은 전주를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과



지난 4일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가운데)이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연계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인근에 기생충 세트장 복원 및 시대별 어우르디오를 설치하는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사업(2억)은 영화의 거리에 건립되는 독립영화의 집과 더불어 전주를 영화영상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주의 관광이자 첫마중길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기를 찾고 있는 전주역세권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기술인 AI 등 SW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예산으로 12억 원이 확보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중앙부처 대면 활동 제약과 경제성장률 둔화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된 가운데서도 기대 이상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성과에 대해 전북도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하나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과 어진박물관 증축, 서학동 예술복합문화센터 조성 등의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 문화예술 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공직자와 전북도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가장 큰 성과인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사업을 통해 전년대비 문화도시인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이자 대한민국 영상산업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2021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어 한다"면서 "전북도민의 영원인 금융중심지, 탄소산업진흥원, 공공의대 등 숙원사업 예산이 확보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권 전북도 전주시 등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협치가 있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2021년에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어가 전주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는 도시, 전주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상황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교육청 내에 코로나19 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도와 소방서, 보건소 담당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주 1회 부교육감 주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부서간 업무 협의도 진행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에 대비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지난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이후(고3) 및 학년말(초·중·고) 학사운영 내실화 기본 방향'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와 함께 수능 이후 고3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초·중·고교의 학년말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